

# 지방선거 D-14

## 이곳이 6·2 격전지

6·2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광주일보의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 지

방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27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중 박원일 접전을 펼치고 있는 곳을 찾아가 선거구도와

관계를 분석한다. (한=한나라당, 민=민주당, 노=민주노동당, 진보신당=진, 국민참여당=참, 무=무소속)

### 현직구청장이냐 민주냐

#### ■ 광주 서구

광주 서구청장 선거는 광주지역 구청장 선거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전주연 서구청장(62)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전략공천을 통해 광주 최초의 여성 구청장 후보로 김선옥(52) 후보를 내세웠다.

전 청장은 이에 맞서 전략공천의 부당성과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 민주노동당 강기수(58) 후보도 서구청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서구는 광주 지역 5개 구 가운데 민주노동당 지지세가 가장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민참여당 서대석(49) 후보도 노무현 정권 계승을 내세운 정찬용 광주시장 후보와의 러닝메이트로 나서며 서구를 누비고 있다.



김선옥 (민)



강기수 (노)



서대석 (참)



전주연 (무)

**김선옥 시민중심 생활·복지 서구 구현**  
**강기수 “민주당 ‘오만과 무능’ 심판해야”**  
**서대석 노무현 정신 앞세워 지지 호소**  
**전주연 전략공천 부당성·명예회복 벌러**

전반적인 관세는 김선옥 민주당 후보와 전주연 무소속 후보가 2강을 형성한 가운데 민노당의 강기수 후보와 국합당의 서대석 후보가 뒤를 쫓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김선옥 후보는 '시민중심의 생활자치'를 강조하며 서구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000명의 시민 패널을 구성해 구정을 함께 협의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역동적인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구청장 중심의 독선과 전횡을 철저히 타파해 나가는 한편, 아이들과 엄마, 장애인과 노인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복지 서구'를 구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김후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여성이라는 한계를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 개혁 회구 세력의 결집으로 극복,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무소속 전주연 후보는 정몽헌 구청장 출신으로서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내세우며 표발을 갈고 있다. 전 후보 측은 지난 4년 동안의 구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

의혹과 관련해 서구청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풀려나기 전까진 자신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전 후보의 발목을 잡을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두 그를 맹추격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수 후보와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는 민주당 독점체제를 깨트릴 대안세력으로 서구민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 출신인 강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아동 수당 지급 등 친서민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서구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서대석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며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서 후보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도덕성과 청렴성, 행정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며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자율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서구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강운태 對 황일봉’ 구도

#### ■ 광주 남구

광주시 남구청장 선거에는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황일봉(53) 후보에 한나라당 성용재(62), 민주당 최영호(45) 후보가 도전장을 각각 던지며 나섰다.

광주연습장과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해온 한나라당 성 후보가 지난 14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지역 표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18일 현재 남구청장 선거는 황, 최 양강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실 황일봉, 최영호 두 후보는 님은 부분이 많다. 보성이 고학이며 전남대 재학 중 학생운동으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또 광주시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남구의 최대 주주인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성용재 (한)



최영호 (민)



황일봉 (무)

**성용재 “지역발전위해 여당에 표 줘야”**  
**최영호 “재집권 갈망 민주 바람 불것”**  
**황일봉 무소속 시·구의원 후보 연대**

와 깊은 인연이 있다. 남구청장 선거구도는 '강운태 대 황일봉', '민주당 대 반민주당', '참신 대 관록' 등 3가지의 커다란 줄기로 형성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8년 동안 남구의 바닥을 다져온 황 청장의 3선을 강운태 시장후보의 힘으로 저지할 수 있는느냐다. 강 시장후보와 황 후보는 애초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황 후보는 지난 97년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2004년 총선 때 강 시장후보를 도왔다. 하지만, 2004년 이후 둘 사이는 멀어졌으며 지난 2008년 총선 때 강 후보가 돈봉투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최악의 관계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강 시장후보가 직접 전면에 나서 최 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강 후보의 남구 장악력 때문에 최 후보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하지만, 황 후보 측은 “강, 황 후보 둘의 관계가 악화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고 지금은 관계가 호전됐다”며 “그럼에도 이강

7곳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와 연대를 하고 있다.

물론 최영호 후보 측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불어올 '민주당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 최 후보 측은 “지금도 반민주당 정서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 2012년 재집권을 갈망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정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후보 측이 기대하는 것은 황 후보에 대한 구민들의 ‘3선 거부감’. 현직 프리미엄보다는 거부감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론 황 후보 측은 “지난 8년 동안 구정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며 “3선 거부감은 실체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 측은 “황 후보는 도덕적 검증은 기초로 하는 배심원제 경선이 두려워 탈당하고 무소속 길을 택했지만 참신한 최 후보는 이 과정을 거쳐 후보가 된 만큼 구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신도심 유권자 변수로

#### ■ 광주 광산구

최근 몇 년 동안 신도심 조성으로 인해 외부인구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30~40대 유권자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곳이다.

첨단·비어·운남·신창·신가·수완지구 유권자가 전체 광산구 유권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신촌 주거단지 유권자 표심이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산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민형배(48)후보와 국민참여당 송병태(71) 후보의 양자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민주노동당 신중철(40) 후보와 한나라당 박창원(39) 후보가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이들을 추격하는 양상이



박창원 (한)



민형배 (민)



신중철 (노)



송병태 (참)

**박창원 30대 젊은 기수 내세워 호소**  
**민형배 젊은층 표심잡기 공약 발표**  
**신중철 노동자·서민 대변자 자임**  
**송병태 토박이론 부각 지지 기대**

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민주당의 젊은 후보와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참여당 전직 구청장이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됐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광산구청장 선거에 당력을 모으고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도 예상된다.

민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낸 국정경험을 내세우며 광산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책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 후보는 광산구에서 민주당의 정당지 지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어 당의 조직을 적극 활용, 지지층을 결집해낸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광산구의 평균 연령이 31.4세인 만큼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생활정치’ 공약을 통해 개혁·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반면 참여당 송병태 후보는 민주당 민 후보를 겨냥해 자신이 진정한 광산구 토박이

임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며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이 때문에 광산의 옛 도심과 농촌 지역, 첨단 일부 지역 등을 안정적 지지기반으로 확보하고 있는 송 후보는 토박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선거 승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심이반이 커지면서 민주당을 이탈한 표심도 송 후보에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후보의 대결에서 ‘노무현 추모’ 표심도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민 후보와 노무현 정권 계승을 선언하고 창당한 국민참여당 후보들이 만큼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노풍’이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두 후보의 ‘양강 대결’ 속에 노동자·서민의 대변자임을 내세워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신중철 후보의 약진도 기대된다.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 한나라당 박창원 후보는 30대의 젊은 후보를 내세우며 바다 다지기를 하고 있다.

/최필원기자 cki@kwangju.co.kr

### ■ 지방선거 핫코너

#### 박준영 “임을 위한...’ 사태 사과해야”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는 18일 “5·18의 상징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날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장에서 불리지 않아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당시 자유와 민주, 인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다 산화한 광주 시민군들의 영혼을 추모하는 곡으로 지난 30년 동안 5·18 노래로 불려왔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월 관련 행사는 물론 지난 2004년

부터 열린 정부 주관의 5·18 기념식에서도 빠짐없이 불렀던 노래 제창을 국가보훈처가 이번 행사에서 빼버린 것은 5·18의 혼이 실종된 겁대기 행사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민주당)

#### 구충곤 “무등산 국립공원 추진”

구충곤 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는 18일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광주시의 무등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 화순군의 발전에 기여하는 무등산 관리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합의체를 구성해 광주시와 공동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가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국립공원 승격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충곤 (민주당)

#### 임종대 두암동에 선거사무소

임종대 광주 북구 교육의원 후보는 19일 오후 4시 지역 유권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 문화빌딩 4층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임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병든 교육을 치료하지 않으면 수많은 좋은 공약도 헛수고”라며 “깨끗하고 참신한 광주 교육의 지킴이로서 학생의 눈높이와 함께하는 교육,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출마 각오를 다짐 계획이다. 그는 “초·중·고·대학 등 42년의 교육 인생을 통해 준비된 후보에게 교육 복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임종대 (무소속)

#### 정희곤 “학교 5·18교육 확대를”

정희곤 광주 북구 교육의원 후보자는 18일 “일선 학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일선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1980년 이후 출생해 5·18 민중항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여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절실하다”면서 “학교 현장에 5·18 교육 확대·강화를 통해 세계평화 민주시민 양성 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올바른 계기교육 지침 마련 ▲교육청 차원의 5·18 계기 및 수업 자료 제작 지원 ▲5·18 행사 현장체험학습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희곤 (무소속)

#### 정천규 선거사무소 개소식

정천규 무소속 광주시의원 (서구 제2선거구) 후보는 19일 오후 7시 상무지구 휴먼빌딩(204호)에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다.

정 후보는 “뒤 늦게 출마를 결심했지만, 지역 토박이인 만큼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지역 발전에 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광주시 생활체육회 서구 축구연합회장과 전남대 총동창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정 후보는 서구 지역에 여자 고등학교 유치 및 맞벌이 부부자녀의 심야 교육 확대, 도심권 작은 도서관 확충 등 교육과 복지 등의 공약을 내세울 계획이다.



정천규 (무소속)

#### 장휘국 “학력신장 통해 사교육 해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후보는 18일 “학력신장 5단계 프로젝트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자기 주도형 학습 방식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면 사교육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실천 공약으로 ▲사이버 가정학습 전면 확대 ▲학력수준별 맞춤형 24시간 학습지원시스템 도입 ▲기초학력 부진학생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책임지도 확대 및 대학생 멘토링 활성화

▲창의성 학습능력 고취 위한 주관식·서술형 평가 확대 등 5단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장 후보는 또 “방과 후 학교 공익재단을 설립해 소외계층 학생 등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공교육 내실화는 물론 우수 교원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휘국 (무소속)

#### 서정성 방림동에 선거사무소

서정성 민주당 광주시의원 후보(동구 제2선거구)는 19일 오후 6시30분 광주시 남구 방림동 대일빌딩 5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서 후보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인술을 뛰어넘어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인술을 펼치려고 한다”며 “이번 개소식은 광주 정신과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되살릴 ‘정치다운 정치’를 시작하는 첫 걸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는 현재 민주당 남부교육협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청년회의소 회장, 광주시의사회 대변인, (사)희망나무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정성 (민주당)

#### 손재홍 “동구 자전거 도시로”

손재홍 민주당 광주시의원(동구 제2선거구) 후보는 18일 “동구의 특정지역을 자전거 생활도시로 지정, 자전거 도로 생활이 가능한 시민지역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해결과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 건설을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지하철, 자전거를 축으로 하는 대중교통정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 앞으로 10년, 20년 뒤 도심 교통량을 지금보다 50% 이상 줄일 수 있고, 자전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재홍 (민주당)

/박지경·최필원·박진표 기자 jkpark@